

# 콜럼버스 교구 성 대건안드레아 한인 천주교회



본당주소: Holy Family Church 584 W. Broad St. Columbus, OH 43215

홈페이지: <http://www.kcolumbus.org>

주임신부: 김충귀 베드로 신부 (badakck@yahoo.co.kr, 614-961-0980)

- \* 주일미사 :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 평일미사 : 매주 금요일 오후 5시30분
- \* 성시간 : 매월 첫째 금요일 미사 후      \* 유아세례 : 매월 둘째 주일 미사 후
- \* 병자봉성체 : 매월 셋째 주일 미사 후

## 본당 소식

◆ 6월은 예수성심 성월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더욱 깊이 묵상하는 한달 되시고, 성심의 은총이 모든 교우들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 예비자 교리 개강 안내

- 교리기간: 6/28-8/15 (매주 금, 토 저녁 6:30)
- 신청방법: 오늘 미사 후 신청서 배부
- 담당자: 이호근 라파엘 형제님

### ◆ 첫영성체 가정 교리 안내

- 교리기간: 7/4-8/22
- 신청방법: 주일 미사후 이호근 라파엘 형제님께
- 부모 첫모임: 6/28 주일 미사 후 성당
- 첫영성체: 8/23 일 주일 미사 중

### ◆ 북미주 대구대교구 사제 피정 및 연수

- 일시: 6/22(월)-6/26(금)
- 장소: 캐나다 켈거리
- \* 본당신부님께서 참석하시는 관계로 6/26 (금) 평일 미사는 없습니다.

### ◆ 성모회 모임

- 일시: 오늘 미사 후
- 장소: Parish Center

### ◆ 친교 준비 봉사자

- 6월 21 일: 김정일

### ◆ 6월 친교 후 정리 봉사: 김효임 구역

- ◆ 매월 둘째 수요일, 본당 빈첸시오회에서 홀리스 무료급식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 일시: 매월 둘째 수요일 12시-1시
- 장소: Faith Mission Shelter  
599 E. 8th Ave. Columbus, Ohio

### ◆ 2009년 BAA (Bishop's Annual Appeal)에 많은 교우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BAA 모금은 콜럼버스 교구의 모든 본당에서 이루어지며, 모금액은 주교님께서 정하시는 가톨릭 교육 사업, 성소 개발, 사정이 어려운 단체나 본당 지원 사업 등에 사용됩니다.
- 올해 우리 공동체의 목표금액은 \$5,700이며, 지난해까지 모금액은 \$1,550입니다.
- 참여하실 분은 재무위원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성모회에서 롯데 상품권을 판매합니다. 판매금액의 10%가 성모회 기금으로 모입니다. 교우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주 일 헌 금	\$435.00
교 무 금	\$865.00
감 사 헌 금	\$30.00
BAA	\$350.00

- 교무금: 인영범 김태훈 양희진 배상진 조한벽 이수호
- 감사헌금: 최예리
- BAA: 연도흥(\$100) 익명(\$250)



# 성 대건안드레아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Taegon Korean Catholic Community

연중 제12주일 June 21, 2009



< 배 안에서 주무시는 예수님 >

들라크루아 (1798-1863), 유채, 발터미술관, 볼티모어, 미국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호수까지 복종하는가?”

# 오늘의 전례

제 1 독서 욥기 38,1.8-11

“너의 도도한 파도는 여기에서 멈추어야 한다.”

화답송



제 2 독서 코린토 2서 5,14-17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우리 가운데에 큰 예언자 나타났네. 하느님이 당신 백성을 찾아오셨네.
- ◎ 알렐루야

복음 마르코 4,35-41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호수까지 복종하는가?”



## 공동체를 위한 묵주기도 50만단 바치기 운동

- 지향1) 공동체 자체 건을 마련을 위한 지향
- 지향2) 공동체 안에서 고통중인 신자를 위한 지향
- 지향3) 공동체 안에서 성소자 계발을 위한 지향

구역	지난 주일	합계
김제준	단 명	5,423단 33명
이호영	180단 2명	21,367단 143명
정하상	단 명	3,485단 77명
황석두	단 명	7,460단 78명
김효임	단 명	1,171단 29명
기타	단 명	130단 3명
미사중	단 명	12,109단 10,315명
	180단 2명	2/22/04 -6/14/09 (277주)

☞ 총누계: 215,490단 12,777명

묵주기도 목표단수는 매주 5천단입니다.



## 봉사자 안내

	6월21일	6월28일
해설자	김오경	고상식
독서/봉헌	김효임 구역	정하상 구역
보편지향 기도	증거자의 모후	십자가의 모후

## 오늘의 성가

♪ 입당: 24      ♪ 봉헌: 210  
 ♪ 성체: 198 187      ♪ 파견: 62

## 생명의 말씀

### 인간의 잣대로 주님을 바라보지 말아야

안병철 베드로 신부 | 서울대교구

거센 돌풍은 제자들을 두려움과 공포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배 안에는 예수님께서도 함께 계셨습니다. 하지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말입니다. 제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그분을 흔들려 깨웠습니다. 그분께서는 제자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알아채시고 바람을 꾸짖으시어 호수를 잔잔케 해주셨습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 시기에 바람과 호수까지 복종하는가?” 제자들은 그렇게 놀라움과 감탄이 섞인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예수님이란 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하는 것으로 우리의 시선을 모아줍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한 제자들의 질문은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로서의 주님이심을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전해주는 풍랑을 잔잔케 하신 사건은 오늘을 살아가는 신앙인들 안에서 끊임없이 계속되는 사건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한 굳은 믿음을 갖고 있었다면 비록 거센 돌풍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온몸으로 느꼈다 하더라도, 주무시고 계셨던 예수님을 황급하게 깨우면서까지 호들갑을 떨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비록 주무시고 계셨지만 실상 제자들과 한 배 안에 같이 자리하고 계셨으니 말입니다.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있었으면서도 예상치 못했던 시련과 고통을 겪게 되면서 그분께 대한 믿음과 확신의 끈을 한 순간에 놓아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들의 모습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아무런 걱정이 없고 모든 것이 자기가 바라던 대로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가는 현실 앞에서는, 주님을 섬기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별로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을 살아가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다고 여기지요. 그런데 어느 날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맞아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갈등과 고통을 겪게 되는 경우 자신 안에 자리하고 계셨던 주님은 더 이상 자기를 위한 주님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던 경우가 혹시 없었는지요?

주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고 살아왔기에 늘 행복하게 살 수 있었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던 읊에게 어느 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통의 시련이 밀어닥쳤습니다. 그가 감내하기 힘들었던 것은 고통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를 힘들게 한 것은 고통을 당해야 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맞섰습니다.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저에게는 너무나 신비로워 알지 못하는 일들을 저는 이해하지도 못한 채 지꼈었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며 먼지와 잿더미에 앉아 참회합니다’(욥 42,3.6).

그렇습니다. 읊처럼 우리 방식대로 주님을 인식하려는 낡은 신앙의 태도를 이제는 떨쳐 버려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 편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이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두려움이 사라진다면 남는 것은 행복과 기쁨 아닙니까? 주님께서서는 우리 모두가 행복하도록 두려움의 장벽을 헐어내 주십니다.